개전북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종합 03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서 고민 깊은 전북 정치권

서울=강영희 기자

정가 초점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고민

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직접 출마를 노리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 입지자들의 고심이 깊은데 대선과 맞물린 역학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가늠하는데 분주해 보인다. 사실상 본인 입장에선 정치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로 최근 부쩍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3개월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은 이 같은 선거 이벤 트에서 대선 후보를 향한 줄서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대선 후보군과 그를 지지하는 유력인사, 지역에서 출마를 노리는 단체 장 및 지방의원 후보군은 정치권 내에서 공

차기 대선 앞두고 전북 정치권 줄서기 불가피 도지사 등 단체장 출마 고심중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택 압박 대선 분위기 고조되면서 정치권 분위기 변화 예고 대선 영향력, 지방선거까지 공천 뿐 아니라 본선 영향 커

생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지방선거는 같은해 6월 1일 치러진다.

쉽게 말해 도내 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 군들이 대선 후보 가운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에 따라서 후보 경선 및 공천 가도에서 직간 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계 파 배려 등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도 재편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선 가도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및 일반시민 투표시 직접적인 영향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주자들은 '대선과 지선은 함께 간다'는 대전 제를 바탕으로 권리당원 모집 등 경선 준비 에 나서고 있다. 도내에서 연초부터 당원 모 집 열기가 감지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 아 보인다.

현 단체장 뿐 아니라 출마 예정자들이 대선 지지 후보군을 언급하며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정권 재창출과 대선 후보 지지 차원이라는 명분의 이면에는 자기 선거방어라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전북 도지사 구도를 언급하면서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먼저 치러지는데다 코로나 정국에서 도지사 후보 군들이 선뜻 출마 입장을 밝히지 못할 상황" 이라며 "결국 권리당원 모집은 대선용 명분 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 출마를 위한 준비작업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지역 민주당 권리 당원 숫자 변화 흐름도 과거와 달리 완만해 졌다. 과거 선거 때마다 부쩍 늘었다 썰물처 럼 빠져나가던 권리당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감소치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매회 선거때마다 50%대에 달했던 권리당원 이탈 흐름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권리당원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의식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자연스럽게당원들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 가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및 당원들의 뜻이 반영돼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산교육지원청 온라인 쇼핑몰 구축

전국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에 연간 70억원 시장을 거래하는 온라인 쇼 핑몰이 탄생한다.

이름하여 '익산 에듀몰'(가칭).

교육기관 물품을 거래하는 쇼핑 플랫폼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익산 에듀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1일 교육기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지역 대부분의 일선 학교는 각종 물품 구매 시 옥션·G마켓·쿠팡·11번가·네이버쇼핑 등 대형 쇼핑몰을 이용해 교육예산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문구류·서적·사무기기·생활용품·공구·전자제품·소수선 용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담을 계획이다.

/익산=고운영 기자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정치 파란 만들어 보겠다"

장수 출신으로 광주 라디오 방송서 "4월 보궐선거 승리하고 대권 도전 선언" AI 청년창업가와 간담회 "국가적 차원에서 광주에 과감히 투자해야"

국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수 출신인 박 의원은 21일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난 후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등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주셨으면 한다"면서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원칙을 급히지 않고, 상식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반칙, 불법행위에 물러섬 없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해다

또한 "시대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파란을 만들어보겠다. 국민들께서 환호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정치의 역동성을 나 박용진이 만



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이재용 실형 △ 공매도 재개 △전직대통령 사면 등에 대 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그는 전날 AI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듣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박용진 의원은 "평화·인권·민주의 상징인 광주의 청년도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면서 "광주의 먹거리,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울산이나 포항, 거제에 중화학공업 등의 기반을 만들었듯이 광주에도 투자해야 한다"면서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어제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 '불공정필망국'이라는 글을 남겼다. 공정하지 못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공정을 내세우고, 상식과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박병석,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현장 방문 부산 분관 공사 올 6월 준공 목표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 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 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한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 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 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 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 길 바란다"면서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건립된다. 열람실, 전시실, 세미나실과 자료보존을 위한 서고 등이 주요 시설로 들어선다. /서울=강영희 기자

가 세전북신문 THE SAEECNBUR SHIMMUN 구독신청 063) **230-5712**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에너지 절약, 함께 실천해요!

- ਡ 낮에는 햇빛 이용하기
- ਡ 플러그뽑기
- 절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
- ਡ 빨래는 모아서 하기
- ✓ 에너지 효율등급 확인하기

刘종방망

취업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교 김제캠퍼스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 ~ 3월5일 까지!

접수처

인터넷접수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또는 방문접수(본교 교학처)

특전

<mark>높은 취업률</mark>(대학정보공시 기준 81.1%), <mark>제렴한 학</mark>삐(1학기 116만원), 재학생 90%장학생 혜택, 타 대학과중복지원 가능

● 모집인원

기계시스템	산업설비자동화	메카트로닉스	스마트전기	정보통신시스템
33	27	20	7	21



(063)540-7622